

교구 수호자

묵주 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Arca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그림 이은숙 수녀 | 출처 바오로딸콘텐츠

## 부산교구의 수호자

부산교구는 1957년 1월 21일 대구대교구에서 분리됨.

초대 교구장인 최재선 요한 주교는

부산교구를 묵주 기도의 성모님께 봉헌하고,

"묵주 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을 교구 수호자 축일로 제정

또한, 묵주 기도 10만 번, 100만 번 드리기 운동을 펼치며  
교구민들에게 교구의 발전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5만 명가량의 신자와 35명의 사제로 시작된 부산교구는  
현재 125개 본당, 46만 명의 신자, 370명의 사제로 이루어짐.

성모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있었기에

기적과 같은 성장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마리아를 붙들면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마리아의 보호를 받으면 겁날 것 없고, 피곤하지 않을 것이고,  
마리아가 돌보아 주시면 목적지에 안착할 것이다.

(성 베르나르도)

## 레판토 해전

비오 5세 교황이 1571년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제정한 '승리의 성모 축일'이 '묵주 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이름이 바뀐다.

## 레판토 해전

~~~~~

1571년 오스만 투르크(터키) 군대가 가톨릭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 대함대를 이끌고 이탈리아로 향함. 소함대 하나만 편성된 그리스도교 함대를 위해 비오 5세 교황은 전 신자에게 묵주 기도를 바치라고 명하였고, 그리스도교 함대는 기적적으로 적 함대를 모두 격퇴시켰다.

모든 이들은 묵주 기도로 인하여 대승리를 거두었다고 여기며, 각지에서 성모 마리아께 대한 감사의 예식이 거행되었다.

## 묵주 기도

도미니코 수도회의 수사 알라노 데 루페가 시작,  
그는 묵주 기도를 자신들의 사도직으로 삼으며 널리 전파하도록 함.  
또한, 이 기도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고,  
교회의 적들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묵주 기도는 경건하고 열심한 기도 방법으로,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를  
매일같이 다윗의 시편 누 만큼 드리는 것이다.  
(교황 식스토 4세가 1479년에 발표한 칙서 중에서)  
”

묵주 기도를 통해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해 왔고,  
이는 가톨릭교회를 대변하는 기도로 자리매김하였다.

묵주 기도로 힘을 얻어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하자.

## 성모님과 함께 기도했던 초대 교회

“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사도 1,14)

오늘 이 독서를 봉독하는 이유는

초대 교회 때부터 제자들이 교회의 모든 삶에서

성모님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했음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 성모님에 관한 가장 오래된 증언

제2독서인 갈라 4,4-7은 신약성경 가운데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언급하는 가장 오래된 본문

“ 때가 차자 하느님께서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갈라 4,4)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자 온전한 하느님이시라는 것.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우리의 간청을 애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묵주 기도를 통해 그분께 의탁하는 이유이다.

##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겸손했던 마리아

“

곰곰이 생각하였다. (루카 1,29)

”

마리아는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긴다.

어떤 이들은 마리아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찾아 나서서 그분을 방해했다고 여기기도 한다.

(‘예수님의 참가족’ - 루카 8,19-21)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마지막을 지키신 분이 성모님이시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성모님을 맡기셨다는 것,  
그리고 초대 교회는 언제나 성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또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생활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